

2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세종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어요.

태종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아 세종이 다스리던 시기에 조선은 안정되고 평화로웠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어요.

세종은 백성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러한 세종의 노력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이후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지요.

과연 세종은 백성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EBS**

↑ 세종, 만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지독한 책벌레, 세종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충녕 대군이라 불렸지요. 그는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였으며, 글공부를 무척 좋아했어요. 또한,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죠.

왕자 시절에 세종이 글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눈병에 걸려 앓아 누웠다고 해요.

“충녕 대군의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숨기도록 하라!”

걱정스러웠던 태종은 세종의 방에 있던 모든 책을 치우게 했지요. 그런데도 세종은 병풍 뒤에 몰래 책 몇 권을 감추어 놓고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났던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왕세자가 되었지요. 이후 왕이 된 세종은 나라의 기틀을 다진 아버지 태종 덕분에 문화와 과학을 꽃피우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답니다.

집현전에서 인재를 기르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주변에 그의 뜻을 알아주는 신하들이 있어야 하는 법!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에는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 모았어요. 집현전 학사라고 불린 이들은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으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하루는 밤에 불이 켜진 집현전에 들른 세종이 공부하다 깜박 잠든 신숙주를 보았어요. 세종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 주었어요.

세종은 나랏일을 하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왕으로 있는 동안 1800번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집현전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사들



세종 대왕

? 호기심 뽀뽀

세종 대왕 시기에는 유난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종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궁궐로 불러들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세종대에 각종 과학 발명을 이끌었던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2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 호기심 뽀뽀

세종 대왕은 한자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왜 굳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어요?



세종이 한글을 만든 목적을 직접 밝혔지요. 훈민정음 서문에 중국말과 우리말이 서로 다른 것,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세종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훈민정음 책 맨 앞(서문)에 보면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뜻이 통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제대로 이

야기하지 못한다. 내 이를 가엾게 여겨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를 통해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당시 조선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한자는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왕의 뜻도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고요. 세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설서이다.

반포

세상에 널리 퍼서 알림

스토리 플러스

양반들은 왜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했을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 하자 최만리 등의 학자를 비롯한 양반들의 반대가 거셌어요.

“중국과 다른 문자를 쓰면, 중국의 학문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되면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당시 양반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아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하는 나랏일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질 테니까요.

세종은 이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해 1446년에 반포했어요. 하지만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통에 처음에는 평민과 여자들만 주로 사용하였죠. 그러나 차츰 한글로 된 책이 만들어져 보급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언문 훈민정음을 낮춰 부르는 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훈민정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는 문자는?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이란 이름은 1928년 한글 학자인 주시경이 훈민정음에 붙인 이름이지요. 한글이 이렇듯 쉽게 배울 수 있고 쓰기 편리한 글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본 자음인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 기관인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본 모음은 세상을 구성하는 '천, 지, 인'에서 따왔어요. 천(·)은 하늘, 지(ㅡ)은 땅, 인(1)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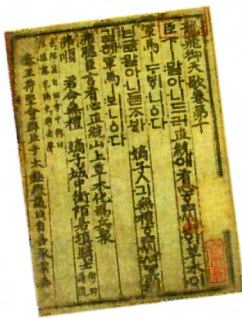
세종이 한글 창제 이후 가장 먼저한 일은 《용비어천가》를 펴낸 일이에요. 이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운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훈민정음은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발음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내는 것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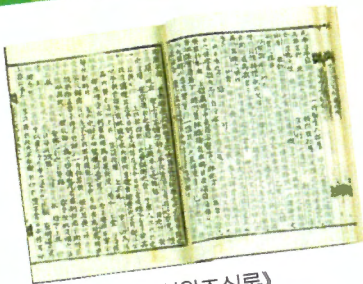
이치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것



《용비어천가》: 한글로 편찬한 첫 번째 책이다. 이성계의 5대 할아버지인 목조에서 태종까지 그들이 한 훌륭한 일들을 노래하였다.

스토리 플러스

《조선왕조실록》이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한 나라 왕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바로 조선의 기록 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실록》이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해요. 조선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예요. 평상시 왕에 대해 기록해 두었던

던 자료를 바탕으로 왕이 죽고 난후 그 다음 왕대에 실록을 편찬했지요. 그런데 실록의 기초가 되는 왕에 대한 기록은 왕도 볼 수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보게 되면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실록이 완성되면 왕에게 보고한 뒤 역사 편찬을 담당하던 관청인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 3곳에 각 1부씩 보관하였어요.

사고 나라의 역사 기록과 중요한 책,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

3 노비 출신 장영실이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비 출신 장영실, 궁궐로 들어오다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장영실은 경상도 동래의 관청 노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기녀였다고 전해요.

장영실이 관청에서 노비로 있을 때 경상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당시 그는 10리 밖의 강물을 끌어들여 가뭄을 이겨내도록 했어요. 동래 지방의 지방관은 그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궁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지방관이 유능한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궁궐에 들어와 기술자로 일하던 장영실은 세종의 눈에 띄었어요. 세종은 그를 중국으로 보내 천문 기기에 대한 기술을 배워 오게 했지요. 이후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벼슬을 얻게 되었답니다.

절기

계절을 구분하려고 한 해를 스물 넷으로 나눈 것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의 천체의 위치를 계산한 책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제작하다

“나라의 근본인 농업이 잘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소?”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 기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도록 했어요. 당시 만들어진 과학 기구들은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하늘의 모습과 별자리를 관측하던 기구인 혼천의, 간의 등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조선은 무엇보다 천문 관측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천문 관측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고,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왕의 임무로 생각했거든요.

또 앙부일구도 제작되었어요. 앙부일구는 최초의 시계로 백성들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되었죠.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로,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각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가로줄에는 절기도 표시되어 있었죠.

비의 양을 재던 기구인 측우기도 제작되었어요. 한편 한성을 기준으로 하늘 모습과 별의 움직임을 계산한 책인 《칠정산》이 편찬되기도 했답니다.

? 호기심 뽀뽀

세종이 각종 과학 기구를 제작해 천체를 관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은 하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자연의 변화를 천체 변화를 통해 알려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천체 변화를 빨리 파악해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혼천의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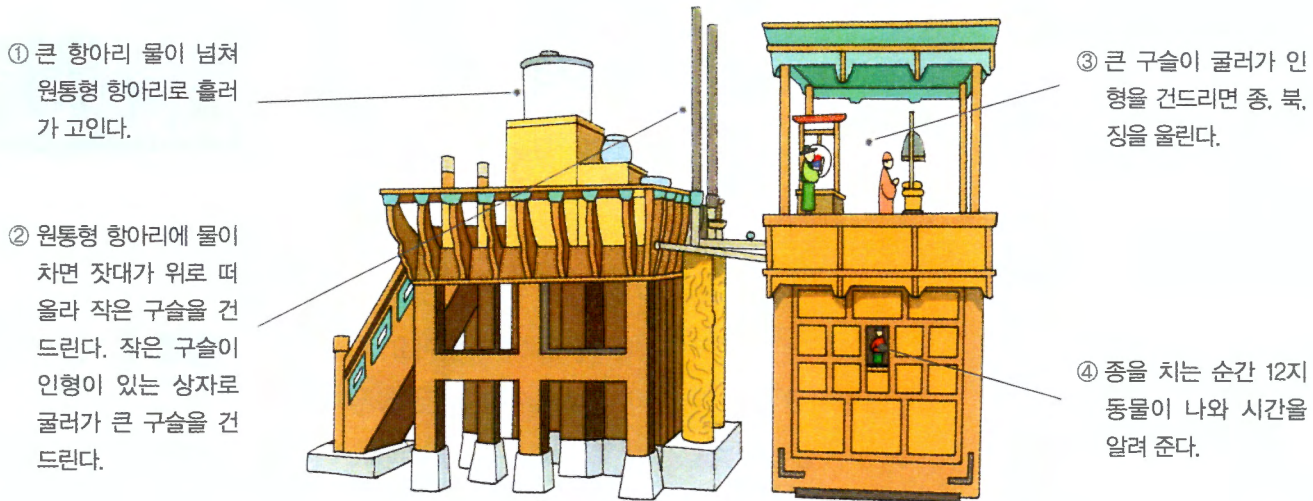
앙부일구



측우기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자격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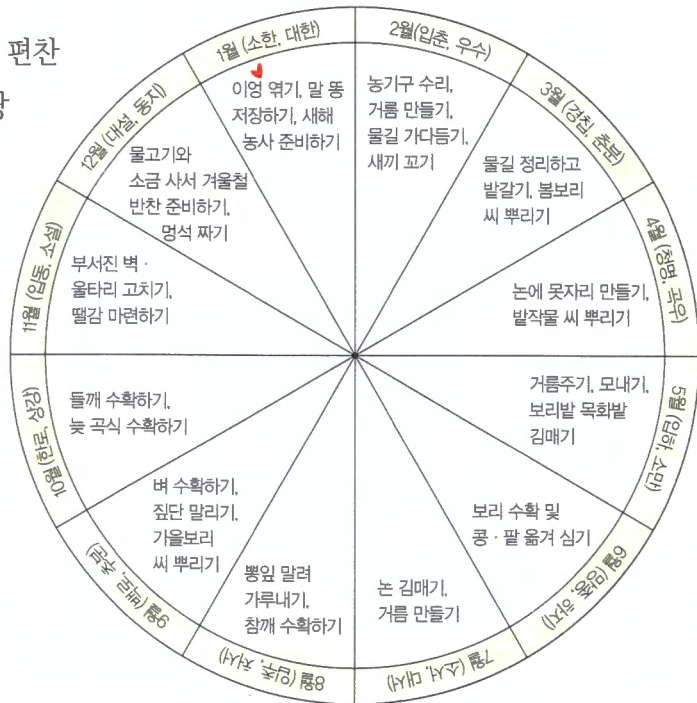
해가 짙은 날에는 양부일구로 시각을 알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어떻게 시각을 알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물시계인 자격루가 만들어지면서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격루는 세종의 명을 받아 장영실이 만들었어요. 물의 변화량에 따라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자동 시계였어요.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농사직설》

나라에서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 관련 책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세종의 명을 받은 정초는 우리나라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이란 책을 펴냈어요. 전국 각지의 경험 많은 농부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들은 후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중국의 책도 참고했지요.

《농사직설》에는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 토지를 개량하는 방법, 모내기법, 거름 사용법 등 각 절기별 농사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후 이 책은 농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민의 한해살이(양력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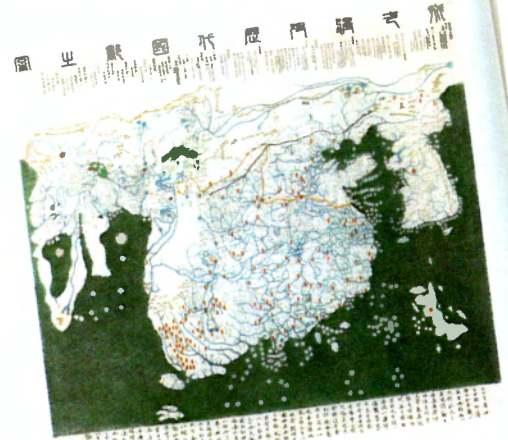
- ↓ 개량 땅의 높낮이나 넓이 등을 재는 일
- ↓ 이영 짚, 풀잎 등으로 엮어 만든 자봉 재료

4 김종서와 최윤덕을 북쪽 지역으로 보낸 이유는?

조선의 외교 정책, 사대교린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 태종 때 만든 세계 지도

조선 초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에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조선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요. 대신 일본은 작게 그려져 있지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이를 통해 조선이 자신들을 크게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도 엿볼 수 있지요.

조선 초기의 대외 정책은 사대교린이었어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교린이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받들었지요. 때마다 진귀한 물건을 바치고 (조공), 사신도 보냈어요. 일본이나 주변 나라들은 친하게 지내야 하는 상대! 생각하였답니다.

이종무, 대마도를 정벌하다

고려 말부터 해안 마을에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구였지요. 이들은 곡식과 물건을 빼앗아 가고,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지도 했고요.

조선은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세종은 이종무를 시켜 왜구를 혼도록 했어요. 이종무는 군사를 이끌고 왜구들의 소굴인 대마도(쓰시마섬) 그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었지요.

얼마 후 왜는 조선에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며 다시 무역을 하게 해 요청했어요. 세종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삼포(부산포, 염포, 제포)를 열어 주며 그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중종 때(1510년)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자 조선은 무역을 중단시켰어요.

♥ **왜구**
우리나라의 주변 바다에서 약탈을 하던 일본 해적

♥ **삼포**
삼포는 부산포, 염포, 제포 세 곳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 염포는 지금의 울산, 제포는 지금의 진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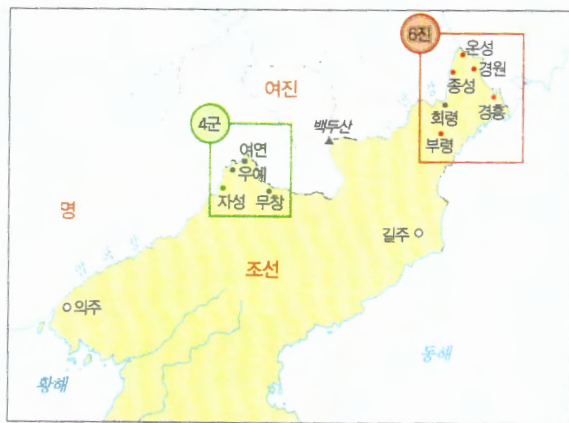


과 6진을 설치해 영토를 넓히다

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세종 때랍니다.
시 두만강 근처에 살고 있던 여진족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자꾸 조선
백성을 괴롭혔어요.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그들을 몰아내도록 했
습니다.

최윤덕과 김종서는 세종의 명을 받고 북쪽으로 가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의 여
진족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4군과 6진을 설치하고 군사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이로써 조선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지요.

1런데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어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으면 우리
으로 유지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국경 지역에 옮겨와
도록 했답니다.



4군과 6진

? 호기심 뽀뽀



어떻게 변방의 소식을 봉수로
알 수 있었어요?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는 봉
화의 개수를 가지고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한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봉수대가 연
결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의
봉화가 피어오르는가를 보
고 어느 쪽의 국경에서 문
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 플러스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알렸을까?

전화도 없고 무전기도 없었던 조선 시대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알렸을까요?

불이나 연기를 피우거나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렸지요. 불이나 연기를 피워 상황을 알리는 제도를 '봉수 제
도'라고 해요.

물론 지금처럼 빠르게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는 위급한 상
황을 중앙 정부에 가장 신속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각 지역의
봉수대에서 불이나 연기를 피워 목맥산(지금의 남산)의 봉수대로 전
달했어요.

평상시에는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가까이 접근해 오면
세 개, 적이 국경을 넘으면 네 개, 적과 전투가 벌어지면 다섯 개의 봉
화를 피워 상황의 위급 정도를 알렸어요.



남산 봉수대(서울특별시)

2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세종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어요.

태종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아 세종이 다스리던 시기에 조선은 안정되고 평화로웠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어요.

세종은 백성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러한 세종의 노력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이후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지요.

과연 세종은 백성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EBS**

1 세종, 맏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지독한 책벌레, 세종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충녕 대군이라 불렸지요. 그는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였으며, 글공부를 무척 좋아했어요. 또한,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죠.

왕자 시절에 세종이 글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눈병에 걸려 앓아 누웠다고 해요.

“충녕 대군의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숨기도록 하라!”

걱정스러웠던 태종은 세종의 방에 있던 모든 책을 치우게 했지요. 그런데도 세종은 병풍 뒤에 몰래 책 몇 권을 감추어 놓고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났던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왕세자가 되었지요. 이후 왕이 된 세종은 나라의 기틀을 다진 아버지 태종 덕분에 문화와 과학을 꽃피우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답니다.

집현전에서 인재를 기르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주변에 그의 뜻을 알아주는 신하들이 있어야 하는 법!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에는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 모았어요. 집현전 학사라고 불린 이들은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으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불이 켜진 집현전에 들른 세종이 공부하다 깜박 잠든 신숙주를 보았어요. 세종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 주었어요.

세종은 나랏일을 하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왕으로 있는 동안 1800번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집현전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사들



세종 대왕

? 호기심 뽐뽐

세종 대왕 시기에는 유난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종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궁궐로 불러들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세종대에 각종 과학 발명을 이끈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2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 호기심 뽀뽀

세종 대왕은 한자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왜 굳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어요?



세종이 한글을 만든 목적을 직접 밝혔지요. 훈민정음 서문에 중국말과 우리말이 서로 다른 것,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세종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훈민정음 책 맨 앞(서문)에 보면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뜻이 통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제대로 이

야기하지 못한다. 내 이를 가엾게 여겨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를 통해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당시 조선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한자는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왕의 뜻도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고요. 세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설서이다.

반포

세상에 널리 퍼져 알림

스토리 플러스

양반들은 왜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했을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 하자 최만리 등의 학자를 비롯한 양반들의 반대가 거셌어요.

“중국과 다른 문자를 쓰면, 중국의 학문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되면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당시 양반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아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하는 나랏일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질 테니까요.

세종은 이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해 1446년에 반포했어요. 하지만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통에 처음에는 평민과 여자들만 주로 사용하였죠. 그러나 차츰 한글로 된 책이 만들어져 보급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언문 훈민정음을 낮춰 부르는 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훈민정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는 문자는?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이란 이름은 1928년 한글 학자인 주시경이 훈민정음에 붙인 이름이지요. 한글이 이렇듯 쉽게 배울 수 있고 쓰기 편리한 글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본 자음인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 기관인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본 모음은 세상을 구성하는 '천, 지, 인'에서 따왔어요. 천(·)은 하늘, 지(ㅡ)는 땅, 인(ㅣ)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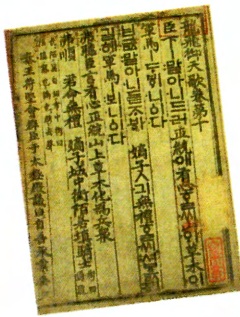
세종이 한글 창제 이후 가장 먼저한 일은 《용비어천가》를 펴낸 일이에요. 이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운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훈민정음은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발음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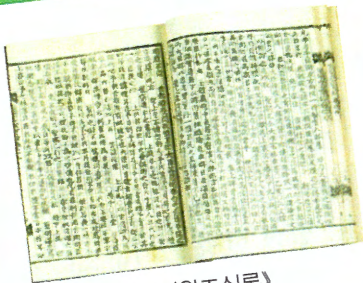
정당성

이치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것



《용비어천가》: 한글로 편찬한 첫 번째 책이다. 이성계의 5대 할아버지인 목조에서 태종까지 그들이 한 훌륭한 일들을 노래하였다.

스토리 플러스 + 《조선왕조실록》이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한 나라 왕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바로 조선의 기록 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실록》이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해요. 조선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예요. 평상시 왕에 대해 기록해 두었던

던 자료를 바탕으로 왕이 죽고 난후 그 다음 왕대에 실록을 편찬했지요.

그런데 실록의 기초가 되는 왕에 대한 기록은 왕도 볼 수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보게 되면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실록이 완성되면 왕에게 보고한 뒤 역사 편찬을 담당하던 관청인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 3곳에 각 1부씩 보관하였어요.

❖ 사고 나라의 역사 기록과 중요한 책,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

3 노비 출신 장영실이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비 출신 장영실, 궁궐로 들어오다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장영실은 경상도 동래의 관청 노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기녀였다고 전해요.

장영실이 관청에서 노비로 있을 때 경상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당시 그는 10리 밖의 강물을 끌어들여 가뭄을 이겨내도록 했어요. 동래 지방의 지방관은 그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궁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지방관이 유능한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궁궐에 들어와 기술자로 일하던 장영실은 세종의 눈에 띄었어요. 세종은 그를 중국으로 보내 천문 기기에 대한 기술을 배워 오게 했지요. 이후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기

계절을 구분하려고 한 해를 스물 넷으로 나눈 것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의 천체의 위치를 계산한 책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제작하다

“나라의 근본인 농업이 잘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소?”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 기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도록 했어요. 당시 만들어진 과학 기구들은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하늘의 모습과 별자리를 관측하던 기구인 혼천의, 간의 등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조선은 무엇보다 천문 관측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천문 관측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고,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왕의 임무로 생각했거든요.

또 앙부일구도 제작되었어요. 앙부일구는 최초의 시계로 백성들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되었죠.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로,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각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가로줄에는 절기도 표시되어 있었죠.

비의 양을 재던 기구인 측우기도 제작되었어요. 한편 한성을 기준으로 하늘 모습과 별의 움직임을 계산한 책인 《칠정산》이 편찬되기도 했답니다.

? 호기심 뽀뽀

세종이 각종 과학 기구를 제작해 천체를 관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은 하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자연의 변화를 천체 변화를 통해 알려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천체 변화를 빨리 파악해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혼천의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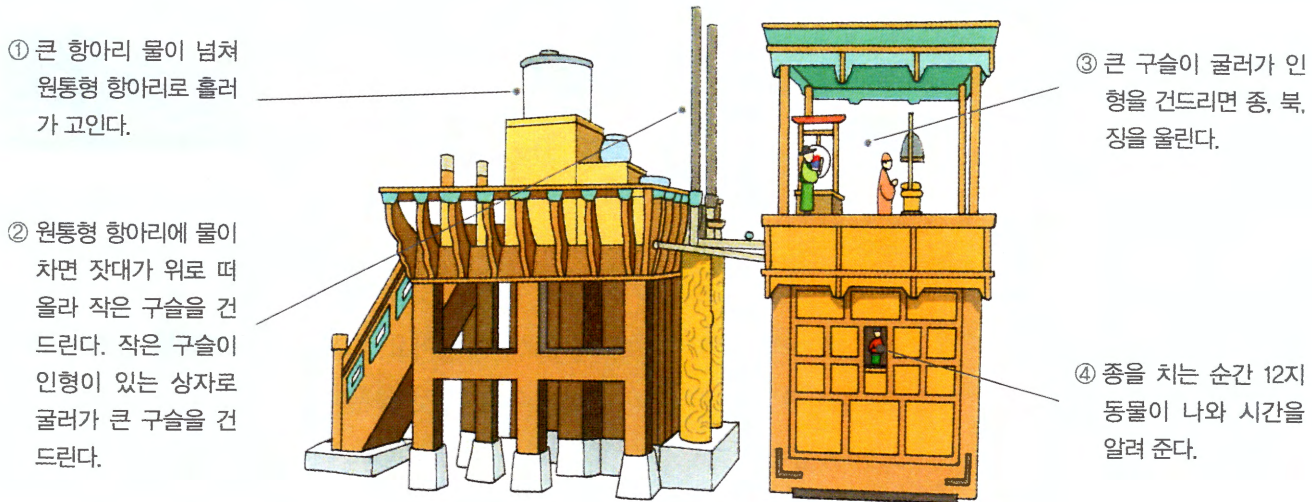
앙부일구



측우기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자격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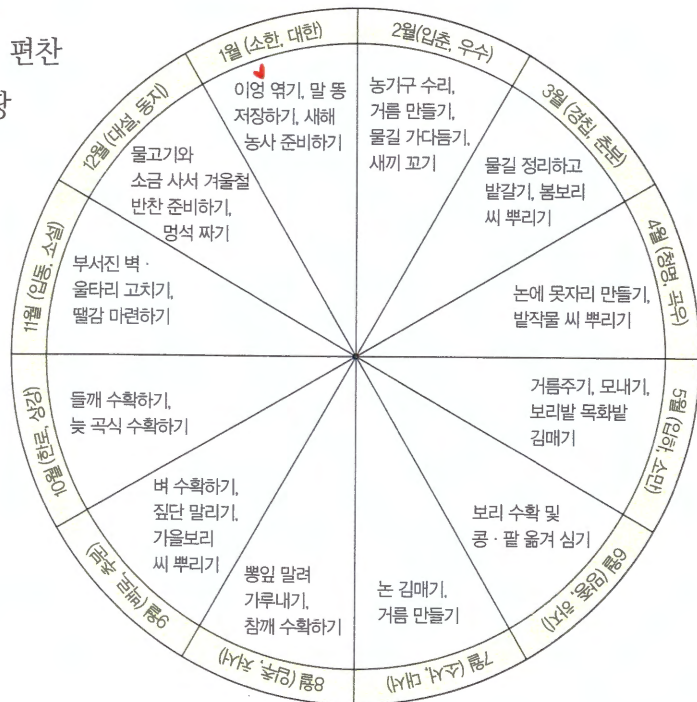
해가 찡찡한 날에는 양부일구로 시각을 알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어떻게 시각을 알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물시계인 자격루가 만들어지면서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자격루는 세종의 명을 받아 장영실이 만들었어요. 물의 변화량에 따라 스스로 시각을 알려 주는 자동 시계였어요.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농사직설》

나라에서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 관련 책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세종의 명을 받은 정초는 우리나라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이란 책을 펴냈어요. 전국 각지의 경험 많은 농부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들은 후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중국의 책도 참고했지요.

《농사직설》에는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 토지를 개량하는 방법, 모내기법, 거름 사용법 등 각 절기별 농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후 이 책은 농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민의 한해살이(양력을 기준으로 함)

- ◀ 개량 땅의 높낮이나 넓이 등을 재는 일
- ◀ 이영 짚, 풀잎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 재료

4 김종서와 최윤덕을 북쪽 지역으로 보낸 이유는?

조선의 외교 정책, 사대교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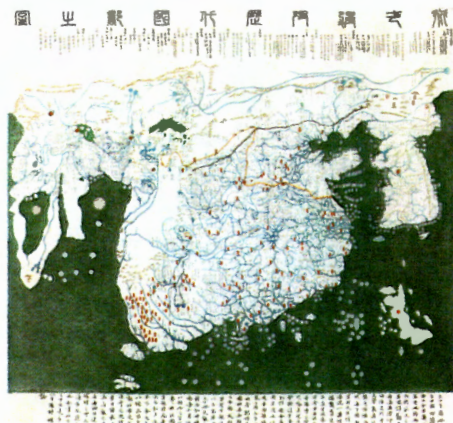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 태종 때 만든 세계 지도

조선 초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에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조선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요. 대신 일본은 작게 그려져 있지요.

이를 통해 조선이 자신들을 크게 그릴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도 엿볼 수 있지요.

조선 초기의 대외 정책은 사대교린이었어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교린이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받들었지요. 때마다 진귀한 물건을 바치(조공), 사신도 보냈어요. 일본이나 주변 나라들은 친하게 지내야 하는 상대. 생각하였답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이종무, 대마도를 정벌하다

↓ **왜구**
우리나라의 주변 바다에서 약탈을 하던 일본 해적

고려 말부터 해안 마을에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구였지요. 이들은 곡식과 물건을 빼앗아 가고,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했.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지도 했고요.

조선은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세종은 이종무를 시켜 왜구를 혼도록 했어요. 이종무는 군사를 이끌고 왜구들의 소굴인 대마도(쓰시마섬) 그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었지요.

얼마 후 왜는 조선에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며 다시 무역을 하게 해 요청했어요. 세종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삼포(부산포, 염포, 제포)를 열어 주며 그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중종 때(1510년)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자 조선은 무역을 중단시켰어요.

↓ **삼포**
삼포는 부산포, 염포, 제포 세 곳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 염포는 지금의 울산, 제포는 지금의 진해임



과 6진을 설치해 영토를 넓히다

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세종 때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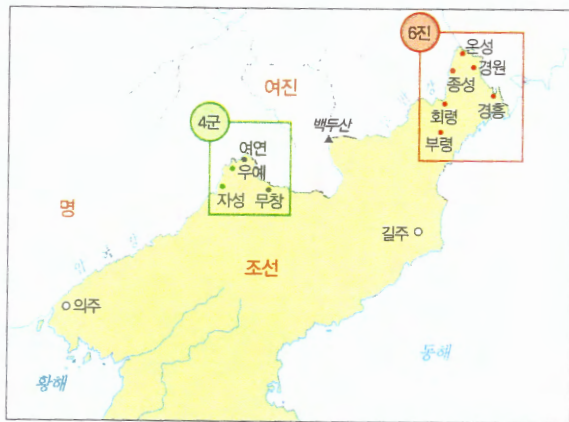
시 두만강 근처에 살고 있던 여진족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자꾸 조선 백성을 괴롭혔어요.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그들을 몰아내도록 했

1. 최윤덕과 김종서는 세종의 명을 받고 북쪽으로 가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의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4군과 6진을 설치하고 군사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이로써 조선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지요. 그런데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어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으면 우리

으로 유지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국경 지역에 옮겨와

도록 했답니다.



4군과 6진

호기심 뽀뽀



어떻게 변방의 소식을 봉수로 알 수 있었어요?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는 봉화의 개수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봉수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의 봉화가 피어오르는가를 보고 어느 쪽의 국경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스토리 플러스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알렸을까?

전화도 없고 무전기도 없었던 조선 시대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알렸을까요?

불이나 연기를 피우거나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렸지요. 불이나 연기를 피워 상황을 알리는 제도를 '봉수 제도'라고 해요.

물론 지금처럼 빠르게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는 위급한 상황을 중앙 정부에 가장 신속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각 지역의 봉수대에서 불이나 연기를 피워 목맥산(지금의 남산)의 봉수대로 전달했어요.

평상시에는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가까이 접근해 오면 세 개, 적이 국경을 넘으면 네 개, 적과 전투가 벌어지면 다섯 개의 봉화를 피워 상황의 위급 정도를 알렸어요.



남산 봉수대(서울특별시)